

‘다이빙 국대 선발’ 광주 정다연 “아시안게임 목표로 최선”

3m 스프링보드 1·2차 모두 1위 반복훈련 통해 완벽해지려 노력

다이빙 국가대표로 선발된 정다연(광주시체육회·사진)이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달린다.

정다연은 지난 6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마무리된 ‘2025수영(다이빙) 국가대표 선발대회’ 3m 스프링보드에서 1차와 2차 경기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얻었다.

4년 전에도 국가대표로 뛰었던 정다연은 당시에는 코로나19로 많은 경합을 펼치지 못했다.

정다연은 “코로나19로 한 3개월밖에 대표팀에서 훈련을 못 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 후로는 계속 부상 기회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집중했던 것 같다. 이왕 할 거 무조건 1등으로 선발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2026년 아시안게임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에서 태어난 정다연은 성인이 되면서 광주로

이적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이빙에 입문하게 된 정다연은 ‘다이빙 강국’ 중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5년간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쌓기도 했다.

중국의 다이빙 디바 ‘귀정징’을 배출한 코치의 가르침을 통해 동작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던 정다연은 “이 시기가 실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상하며 “중국에서 특히 트위스트를 잘 배워와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광주 다이빙 실업팀의 창단 멤버로 시작해 어느덧 9년째 광주 소속으로 뛰고 있다.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말한 정다연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체력과 기술 훈련에 집중했다.

정다연은 “다이빙은 순간의 판단력과 컨디션이 중요한 종목이다. 반복 훈련을 통해 완벽함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며 “작년 체전 개인전에서도 은메

달을 따면서 나날이 성적이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 조금 늦은 시기에 다이빙을 깨달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만큼 매년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9년 전 고등학생이던 그를 광주로 스카우트해 온 광주시체육회 고병진 감독은 정다연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고 감독은 정다연에 대해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그동안 한 번씩 실수가 나오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다. 항상 열심히 한 덕분에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다”며 “경기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편이다. 좀 후에 빛을 보게 됐는데, 앞으로도 하던 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다연은 그동안 응원해준 주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가족들이 더 좋아해 주니까 일단 그걸로 너무 기쁘고 그걸로 또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늦게 깨달은 점들이 많지만, 이제는 더 노력해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화순군청, 전국실업복싱대회서 금빛 활약

임애지·서동근·박초롱 1위

화순군청 복싱이 ‘제12회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에서 금빛 활약을 펼쳤다.

전국 14개 실업부 남·녀 총 60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남 화순의 임애지 복싱 체육관(전 하니움 체육관)에서 열렸다.

화순군청 서동근(남자 -60kg급), 임애지(여자 -57kg급), 박초롱(여자 -51kg급)은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 정상에 올랐다.

서동근은 부전승과 WO(워크오버)승으로 가볍게 결승에 진출한 뒤, 이예찬(성남시청)을 상대로 3-2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임애지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랐고, 강예니칼 네이로(영주시청)를 상대로 5-0 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초롱도 부전승과 WO승으로 결승에 올랐고, 강도연(보령시청)에 ABD(경기 포기)승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박초롱은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또한 화순군청은 선현우(-91kg급)이 은메달을, 박진원(-75kg급)과 박수인(-69kg급)이 동메달을 더하면서 종합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화순군청 복싱이 9일 마무리된 제12회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화순군청 제공>

목포 연합 ‘팀 위드’ 땅끝배전국농구대회 우승

목포 40대부 연합 ‘팀 위드’가 해남에서 열린 성인 농구대회 초대 우승팀이 됐다.

지난 7-8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제1회 땅끝배전국농구대회’가 치러졌다. 해남농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소속 9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A·B·C 3개조로 나눠 두 경기씩 예선전을 갖은 뒤 결승 토너먼트(6강)를 통해 최강자를 가렸다.

조예선 2위로 결승에 오른 팀 위드는 6강에서 광주 ‘HIM’을 58-36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 신안·광주 연합 ‘팀 엑스’에 38-28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팀 위드는 광주 ‘프로젝트C’를 51-44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 2위는 프로젝트C, 공동 3위는 팀 엑스·발해가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 해지 통보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소노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

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앞드려뱉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아이스클라이밍’ 전남 이영건, 드라이틀링 대회 금

리드 종목서 유일 Top존 완등

전남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이 ‘2024 전국 드라이틀링 대회’에서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최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2024-2025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다.

경기 종목은 스피드를 제외한 리드(난이도) 종목으로만 치러졌으며, 남녀부 7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리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코스를 등반하는 종목으로, 예선은 최대 6분, 결승은 최대 8분이 주어진다.

예선 A루트 1위, B루트 2위로 결승에 오른 이

영건은 결승 진출 선수 중 유일하게 Top존까지 완등한 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건은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1차전 1위·2차전 3위로 종합 1위에 랭크됐었는데 올해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1위에 올랐다”며 “스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더 기쁘다. 내년 1월부터 치러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건은 2024 UIAA 아이스클라이밍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리드 종목 세계 랭킹1위에 올랐고 제105회 전국동계체전 산악 리드에서 동메달, 스피드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